

2024년 5월 12일. 12 May 2024

금문교회 창립 제30주년 기념예배. GGPC the 30th Anniversar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2. For by it the people of old received their commendation.
3.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4.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acceptable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God commending him by accepting his gifts. And through his faith, though he died, he still speaks.

히브리서 Hebrews 11:1-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금문교회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여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부터 갚아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금문교회가 나아갈 길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시사, 가는 길마다 온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신앙

Amen Faith

사도행전 Acts 27:1-26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And when it was decided that we should sail for Italy, they delivered Paul and some other prisoners to a centurion of the Augustan Cohort named Julius.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사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And embarking in a ship of Adramyttium, which was about to sail to the ports along the coast of Asia, we put to sea, accompanied by Aristarchus, a Macedonian from Thessalonica.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The next day we put in at Sidon. And Julius treated Paul kindly and gave him leave to go to his friends and be cared for.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And putting out to sea from there we sailed under the lee of Cyprus, because the winds were against us.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And when we had sailed across the open sea along the coast of Cilicia and Pamphylia, we came to Myra in Lycia.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There the centurion found a ship of Alexandria sailing for Italy and put us on board.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We sailed slowly for a number of days and arrived with difficulty off Cnidus, and as the wind did not allow us to go farther, we sailed under the lee of Crete off Salmone.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시에서 가깝더라.
Coasting along it with difficulty, we came to a place called Fair Havens, near which was the city of Lasea.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내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원하여,
Since much time had passed, and the voyage was now dangerous because even the Fast[a] was already over, Paul advised them,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saying, "Sirs, I perceive that the voyage will be with injury and much loss, not only of the cargo and the ship, but also of our lives."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But the centurion paid more attention to the pilot and to the owner of the ship than to what Paul said.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보이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보이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And because the harbor was not suitable to spend the winter in, the majority decided to put out to sea from there, on the chance that somehow they could reach Phoenix, a harbor of Crete, facing both southwest and northwest, and spend the winter there.

The Storm at Sea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Now when the south wind blew gently, supposing that they had obtained their purpose, they weighed anchor and sailed along Crete, close to the shore.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But soon a tempestuous wind, called the northeaster, struck down from the land.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And when the ship was caught and could not face the wind, we gave way to it and were driven along.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Running under the lee of a small island called Cauda, we managed with difficulty to secure the ship's boat.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프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After hoisting it up, they used supports to undergird the ship. Then, fearing that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yrtis, they lowered the gear, and thus they were driven along.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Since we were violently storm-tossed, they began the next day to jettison the cargo.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An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no small tempest lay on us, all hope of our being saved was at last abandoned.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Since they had been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Paul stood up among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have set sail from Crete and incurred this injury and loss.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But we must run aground on some island."

할렐루야!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금문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Go, eat your bread with joy, and drink your wine with a merry heart, for God has already approved what you do.
전도서 Ecclesiastes 9:7

오늘 2부예배 후에, 여선교회가 친교실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결심 한 유대인들이 사십 명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들 "테러단"과 동조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도 바울제거에 가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마음을 같이 한 유대인 무리들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이후 사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공의회, 곧 산헤드린을 포함하여, 로마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은 다섯 차례에 걸쳐 변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그립바 왕을 포함하여 로마 총독과 모든 듣는 자들이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자신의 케이스를 로마 황제 앞에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 앞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자 로마의 심장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사도행전 Acts 23:11

세 번째를 지나 네 번째 변명에서,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정식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변명에서, 베스도는 물론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참석 한 자리에서 바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거기까지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네가 미쳤다!” 했습니다.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에게 “선지자”를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그립바 왕이 “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누구나!” 했습니다.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당신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면, 거기서 무슨 변명을 할 것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선 이후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밀란칙령(AD 313)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공식종교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된 것이 AD 61-63이었으므로, 바울이 황제 앞에 선 지 대략 252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대략 10% 정도였다고 추산합니다. 절대소수였는데,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등극한 것은, 황제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로마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치셨습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을 귀중한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의 호송을 맡은 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 그와 동행하는 자가 적어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 “누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홀로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동행 항로”의 처음 얼마간을 사도행전 27장 말씀으로 듣습니다.

1.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And when it was decided that we should sail for Italy, they delivered Paul and some other prisoners to a centurion of the Augustan Cohort named Julius.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은 육로가 아니었습니다. 뱃길로 정해졌습니다.
총독은 바울과 몇 다른 죄수들을 백부장 율리오(Julius)에게 맡겼습니다.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And embarking in a ship of Adramyttium, which was about to sail to the ports along the coast of Asia, we put to sea, accompanied by Aristarchus, a Macedonian from Thessalonica.

첫 번째 탄 배는 “아드라뫼테노(Adramyttium)” 호였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를 가는 배였습니다.

아리스다고(Aristarchus)가 동선했습니다.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The next day we put in at Sidon. And Julius treated Paul kindly and gave him leave to go to his friends and be cared for.

이튿날, 팔레스타인 북쪽 해변도시 시돈(Sidon)에 도착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Julius)는 바울에게 친절했습니다.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And putting out to sea from there we sailed under the lee of Cyprus, because the winds were against us.

시돈을 떠났습니다. 벌써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맞바람이 일었습니다. 구브로(Cyprus)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And when we had sailed across the open sea along the coast of Cilicia and Pamphylia, we came to Myra in Lycia.

길리기아 성 곁을 지나, 밤빌리아(Pamphylia) 바다를 건너, 루기아(Lycia)의 무라(Myra) 시에 이르렀습니다.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There the centurion found a ship of Alexandria sailing for Italy and put us on board.

거기서 배를 바꾸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호였습니다. 이탈리아(Italy)로 직행하는 배였습니다.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We sailed slowly for a number of days and arrived with difficulty off Cnidus, and as the wind did not allow us to go farther, we sailed under the lee of Crete off Salmone.

배가 더디 갔습니다. 벌써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니다.

터키 서남단 “니도”(Cnidus) 맞은 편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남쪽으로 이동, 그레데(Crete) 섬의 동쪽 끝 항구 “살모네”(Salmone) 앞을 지났습니다.

그레데 섬 남쪽 해안을 따라, 로마가 있는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시에서 가깝더라.
Coasting along it with difficulty, we came to a place called Fair Havens, near which was the city of Lasea.

알렉산드리아 호는 겨우 어렵게 미항(Fair Havens)에 이르렀습니다.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내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Since much time had passed, and the voyage was now dangerous because even the Fast[a] was already over, Paul advised them,

여기까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항해해가 정말 위험합니다.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saying, “Sirs, I perceive that the voyage will be with injury and much loss, not only of the cargo and the ship, but also of our lives.”

바울이 의견을 냅니다.

이번 항해는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물(the cargo), 배(the ship), 그리고 우리 생명도(also our lives) 위험합니다.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But the centurion paid more attention to the pilot and to the owner of the ship than to what Paul said.

그러나 백부장(centurion)은 선장(the pilot)과 선주(owner of the ship)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the pilot)은 산전수전 겪은(he has gone through hell) 경험을 앞세웠을 터입니다.
선주(the owner)는 경제적 저울질(financial interest)에서 모두 바울과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항해를 고집했습니다.
백부장은 그들의 편을 들었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은 그저 죄수 하나에 불과(Paul was but a prisoner)했습니다.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And because the harbor was not suitable to spend the winter in, the majority decided to put out to sea from there, on the chance that somehow they could reach Phoenix, a harbor of Crete, facing both southwest and northwest, and spend the winter there.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되었습니다.
뵈닉스(Phoenix)에 가면 겨울 지내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권위자들에게서 밀렸고, 다수결(majority decision)에서도 밀렸습니다.

The Storm at Sea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Now when the south wind blew gently, supposing that they had obtained their purpose, they weighed anchor and sailed along Crete, close to the shore.

그런데 마침 남풍(the south wind)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닻을 감았습니다(they weighed anchor).

항구를 떠나, 그레데 섬 해변을 끼고 항해합니다. 뵈닉스를 향하여.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But soon a tempestuous wind, called the northeaster, struck down from the land.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라굴라(northeaster) 광풍(a tempestuous wind)이 일어났습니다. 북풍이었습니다.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And when the ship was caught and could not face the wind, we gave way to it and were driven along.

배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데 섬이 멀어지다가,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Running under the lee of a small island called Cauda, we managed with difficulty to secure the ship's boat.

가우다(Cauda)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났습니다.

간신히 거루(ship's boat)를 잡았습니다.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After hoisting it up, they used supports to undergird the ship. Then, fearing that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yrtis, they lowered the gear, and thus they were driven along.

배가 스투디스에 걸리면 깨지고 맙니다. 전멸 위기입니다. 사공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연장을 내렸습니다.

배가 동력을 쓰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Since we were violently storm-tossed, they began the next day to jettison the cargo.

노련한 사공들도 풍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 1:5를 연상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Then the mariners were afraid, and each cried out to his god. And they hurled the cargo that was in the ship into the sea to lighten it for them.

요나서 Jonah 1:5a-b

절대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계속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An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사흘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ship's tackle)를 버렸습니다. 배의 돛을 다스리는 데 쓰는 밧줄도 포함되는 기구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배는 정말 "깡통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떤 노력이라도 포기한 것입니다. "운명"에 맡기는 상태였습니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no small tempest lay on us, all hope of our being saved was at last abandoned.

여러 날 동안!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해도, 별도 못보았습니다.

큰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했습니다.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Since they had been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Paul stood up among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have set sail from Crete and incurred this injury and loss.

사람들은 "오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날에 "오래" 걸렸습니다. 적막감과 죽음의 공포가 배 안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그러나, 그러나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도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깨지겠지만, 너희 중 누구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게 보내셨다.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전에 두 번째 변명 후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천사의 말은,

1.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3.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아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But we must run aground on some island.”

지금은 바다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어떤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의 그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항해에도 남다른 실력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이미 경고할 때부터 드러난 그의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속되면서, 그 자신도 사실은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276명이 탄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멸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길에, 그 배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바람도 물결도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1.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의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2. 우리는 바울의 배처럼, 풍랑 거친 바다를 거슬러 사명지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는 중입니다.
3. 예수님께서 타신 배처럼,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3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증거”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2. For by it the people of old received their commendation.
3.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4.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acceptable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God commending him by accepting his gifts. And through his faith, though he died, he still speaks.

히브리서 Hebrews 11:1-4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금문교회 역사책, <금문교회 30년. 1994년부터>를 나눕니다.

금문교회가 30년 전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는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금문교회 30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멘신앙의 확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역사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될 줄 압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I am not out of my mind. But I am speaking true and rational words.

사도행전 Acts 26:25b

온고이지신. To gain knowledge of new things by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그렇다면, 이제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땅 끝"이었습니다. 핍박의 사자 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갑니다. 한인 이민교회로 시작한 금문교회는, 이제 온 민족을 다 품어내는 "다인종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금문교회 30년사를 정리하면서, 2004년, 창립 제10주년 때 설교한 필립 부틴(Philip Butin) 박사의 설교가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9:8-14; 누가복음 14:1, 12-24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Inside Out, Outside In.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잔치에 초청 받은 자들은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 명령입니다.

My house may be filled!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Outside in, Inside Out.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금문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온 세상의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새로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Amen!

금문교회를 처음 시작하던 때,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은 그들의 염려가 안심으로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팬데믹이 온 세상을 강타한 지금 사람들은 또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신앙으로써!

30년 된 금문교회가 자체 이름이 높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로써 인간 누가 아니라, 인간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금문교회는 높은 이름을 얻으려는 노력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로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광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구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주신 복된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로마를 향해 항해의 길을 나선 바울처럼, 오늘 저희도 사명자답게 복음을 들고,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